

# 원맨팀보다 강한 원팀 독일…티키타카 퇴장시킨 스리백

(스페인식 짧은 패스 축구)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4일(한국시간) 마라카낭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의 2014브라질월드컵 결승에서 0-1로 패한 뒤 그라운드에 앉아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메시는 골든볼을 수상했지만,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랠 순 없었다.

## 박태하 해설위원의 브라질월드컵 결산

점유율 축구 무너뜨린 스리백 대우행 예감  
수비조직력 중요성 일깨운 브라질의 몰락  
11명 원팀 독일, 메시 원맨팀 아르헨 압도

철저한 분석 통한 전술 변화…성적과 직결  
아시아 4개국 무승…곰씹어야 할 계기로

한 달간 70억 세계인의 축제로 펼쳐졌던 2014브라질월드컵이 14일(한국시간) 독일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은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의 조기 퇴장과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개최국 브라질의 몰락 등 시종일관 술한 화제를 낳았다. 스포츠동아 박태하 해설위원의 눈을 통해 브라질월드컵을 결산해본다.

### ●‘스리백’의 화려한 귀환

2010남아공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에 5-1로 승리한 네덜란드, A조에서 홈팀 브라질과 0-0으로 비긴 멕시코, 16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브라질에 승부차기로 패한 칠레 등은 이번 대회에서 ‘스리(3)백’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 한동안 공간 활용에 유리한 포(4)백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스리백이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각광받았다. 여러 팀이 스리백을 중심으로

로 좌우 완어를 수비라인까지 내려 파이프(5)백 형태로 안정적 수비를 구축하며 큰 효과를 봤다.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점유율 축구’, 즉 한동안 세계축구의 흐름을 주도한 ‘티키타카’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리백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스리백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세계축구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브라질의 몰락이 주는 교훈

브라질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독일과의 4강전(1-7패), 네덜란드와의 3·4위전(0-3패)에서 무려 10골이나 내주며 붕괴됐다. 브라질은 공격에 익숙한 팀이다. 브라질의 창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고심했고, 이것이 이번 4강전과 3·4위전에서 ‘극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먼저 실점하면 경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선 수비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정석이다. 브라질이 유능한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도 4강전 이후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것을 네이마르(FCB바르셀로나)의 부상 결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수비 조직력의 와해 때문이다. 홈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삼바군단’을 통해 수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 ●탄탄한 조직력 과시한 독일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되찾은 독일은 ‘팀 축구’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입증했다. 독일은 브라질의 네이마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B바르셀로나) 같은 불세출의 스타 없이도 11명의 선수들이 ‘팀’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앙헬 디 마리아(레알 마드리드)가 빠졌을 때 메시 혼자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음을 네덜란드와의 준결승에서 이미 드러냈다. 독일은 균형 잡힌 전술,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한 조직력으로 결승까지 올라 결국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차군단’의 진일보한 축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향후 세계축구계의 주요 관심사일 듯하다.

### ●빛을 발한 과감한 전술변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완벽한 상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3위에 오른 네덜란드가 스리백을 위주로 하면서도 경기 흐름에 따라 과감히 포백으로 전환했듯 몇몇 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팀은 이번 대회에서 철저한 상대 분석을 밑바탕으로 과감한 전술변화를 꾀했고, 큰 성공도 거뒀다. 한국과 같은 조별리그 H조에 속했던 알제리의 바히드 할릴호지치 감독은 11명 선발출전선수 명단을 매 경기 크게 조정하며 깜짝 놀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웬만한 믿음과 결단력 없이는 쉽게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용인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실패는 여러모로 아쉽다. 한국의 주축 선수 대부분은 제대로 뛸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지 못한 듯했다. 소속팀에서도 출장 기회가 적은 어린 선수들이 많아 큰 경기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 ●변방으로 전락한 아시아축구

일본은 벨기에와의 평가전에서 승리하는 등 인상적인 전력을 구축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이 우승을 공언할 정도로 개막 이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시련을 맞았다. 아시아 4개국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12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고작 3무9패였다. 어느 팀도 1승을 챙기지 못했고, 모두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팀들 가운데 ‘열심히 하지 않는 팀’은 없다. 팀으로서 어떻게 하나로 묶어야 할지, 그라운드 안에서 어떻게 잠재력을 폭발시켜야 할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사분란하게 수비에 중심을 두다가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까지 짓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팀들의 모습을 배워야 아시아축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듯하다.

정리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 ■어둠으로 되돌아온 브라질월드컵

홍명보 “선수들 좋은 경험 쌓았다”  
이영표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  
메시 “개인상은 아무런 의미 없다”

- …우리 선수들은 아직 젊고 미래가 촉망된다. 이번 월드컵으로 좋은 경험을 쌓았고, 더 발전할 것이다. (홍명보 감독.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 ‘좋은 경험을 쌓았다’는 홍 감독의 인터뷰 직후)
- …축구는 간단하다. 뛰지 못하면 진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이 일본과의 조별리그 1차전 후반 움직임이 둔해지자)
- …슈마허(F-1 선수)를 위해 우승하겠다. (독일 공격수 루카스 포돌스키.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올해 초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를 가리켜)
- …또, 또 몰렸어요. (박문성 SBS 해설위원. 우루과이 수아레스가 이탈리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 도중 상대 수비수 조르지오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물자 깜짝 놀라며)
- …패배는 아프지만 행복하다. (코스타리카 호르헤 루이스 핀투 감독. 네덜란드와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로 패한 직후. 코스타리카는 사상 첫 월드컵 8강을 달성했다)
-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다. (브라질 골키퍼 줄리우 세자르. 독일과의 4강전 1-7 참패 후 인터뷰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 …독일은 우리에게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다. (전 브라질국가대표 주니뉴 파울리스타. 4강전 1-7 참패에 대해)
- …신이시여, 저를 보호해주세요! (콜롬비아 수비수 후안 수니가. 8강전에서 브라질 네이마르에게 척추 골절상을 입혀 살해 위협을 받던 와중에 브라질이 독일에 1-7로 대패하자)
-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에게 경의를! (제프 블래테 FIFA 회장. 브라질과의 4강전에서 월드컵 개인통산 최다득점인 16호 골을 터트린 클로제의 업적을 축하하며)
- …나는 뭘에서 행복하다. (네덜란드 아르연 로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데려가고 싶다’는 루이스 판 할 감독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 …개인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골든볼 수상 인터뷰에서 실망한 목소리로)
- …우리는 10년 전부터 오늘을 준비했다. (독일 요아힘 뢰브 감독. 월드컵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 기성용 애스턴빌라 이적설 ‘사실무근’



영국 언론이 기성용(25·스완지시티·사진)의 이적설을 제기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4일(한국시간) “애스턴빌라가 기성용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주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성용의 에이전트사는 “애스턴빌라와 접촉한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다”고 부인했다.

기성용은 선덜랜드로 임대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3~2014시즌을 소화했다.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스완지시티로 복귀해야 한다. 스완지시티는 기성용과 연장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의 계약기간은 1년 남아있다. 스완지시티 입장에서 기성용과 연장 계약을 못하면, 이적료를 최대한 챙기기 위해서라도 선수를 팔아야 한다. 에이전트사는 “기성용은 다음주중 영국으로 출국하고, 일단 스완지시티에 합류한다. 이적과 관련해서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 ‘핵이빨’ 수아레스, 바르셀로나 입단식도 참석 못해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가 새 소속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공식 입단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필리아 피셔 국제축구연맹(FIFA) 미디어 담당관은 14일(한국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수아레스는 축구와 관련된 어떤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피셔 담당관은 “자선행사라도 축구와 관련이 있다면 수아레스는 절대 참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레버쿠젠 최정예 멤버, 손흥민·류승우와 함께 방한

‘LG전자 초청 바이엘 04 레버쿠젠 한국투어 2014’를 주최하는 LG전자는 3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서울-레버쿠젠의 친선경기를 위해 최정예 멤버가 내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손흥민(22)을 비롯해 수테판 키슬링(30), 베르트 레노(22), 곤살로 카스트로(27) 등 레버쿠젠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전망이다. 지난해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레버쿠젠으로 임대된 류승우(21)도 이번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이차만 감독 “이 없으면 잇몸으로 죽음의 터널 뚫어야”

경남, 상위 팀들과 상대…19일엔 울산전  
이한샘·스토야노비치 경고누적 결장 악재

“죽음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이가 없으니, 잇몸으로라도 해야지요.”

경남FC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15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북 현대에 1-4로 패했다. 최근 11경기 연속 무승(7무4패)이다. 정규리그 성적은 2승7무6패(승점 13), 11위다.

경남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상위권 팀들을

상대했다. 5일 수원 삼성(0-0 무승부), 9일 전남(1-3 패배)에 이어 13일 전북과 맞붙었다. 그리고 19일에는 울산 현대전이 기다린다. 경남 이차만(64) 감독은 이를 “죽음의 터널”로 표현했다. 이제 긴 터널의 끝자락이다.

그러나 19일 울산전을 최상의 전력으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은 13일 경기를 치르며 출혈이 심했다. 주전 수비수 이한샘(25)과 공격수 밀로스 스토야노비치(30·세르비아)가 경고를 받았다. 공수의 핵이 경고누적으로 19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감독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한

다. 송수영(23), 이재안(26) 등이 모두 스토야노비치를 대신해 포워드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다. 진경선(34·전 강원)도 팀 합류 이후 나흘 만에 치른 경기(13일 전북전)에서 제 몫을 다했다. 13일 데뷔 첫 골을 넣은 신인 이학민(23)도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것이다. 이후 경기에서도 이들을 잘 활용하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이한샘의 자리를 메울 선수로는 스레텐 스테노비치(29·세르비아)도 거론된다. 과연 경남은 ‘죽음의 터널’을 뚫고, 중위권 반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경남 이차만 감독